



▲ 17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하펠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로 2008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독일의 미하엘 발라크의 슈팅이 오스트리아의 골키퍼 위르겐 마호(왼쪽에서 두 번째)를 비켜 골로 연결되고 있다.

◀ 선제골을 넣은 독일의 미하엘 발라크(왼쪽)가 동료 아르네 프리드리히와 기뻐하고 있다.

발라크 '대포알 슛'... '전차군단' 8강

'전차군단' 독일이 주장 미하엘 발라크의 득점포를 앞세워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8강에 오르며 통산 네 번째 우승을 향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미 8강 진출을 확정지은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는 폴란드마저 제압하고 3연승을 달렸다.

독일은 1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하펠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로2008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후반 4분 발라크가 그립같은 대포알 프리드리히를 뿐만 아니라 훌륭 오스트리아를 1-0으로 제압했다.

지난 9일 폴란드와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13일 크로아티아와 2차전에서는 1-2로 패배한 독일은 이로써 2승1패 승점 6으로 크로아티아(승점 9)에 이어 2위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독일은 통산 세번째로 정상에 올랐던 199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12년 만의 8강 행진이다.

반면 스위스와 이번 대회를 공동개최하

獨, 오스트리아 1-0 제압... 12년 만에 준준결승

8강행 확정된 크로아티아, 폴란드 꺾고 조1위

며 처음으로 무대에서 뛴 오스트리아는 독일을 넘으면 8강행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결국 1무2패의 조량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물러났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A조의 스위스와 함께 나란히 8강 문턱에서 주저앉았을 뿐 아니라 한 차례는 잡지 못한 체

혔던 공방을 벌였고, 이번엔 벤치끼리의 충돌로 번졌다. 양팀 감독은 전반 39분 말싸움을 벌이다 레드 카드를 받고 나란히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득점없이 흘러가던 승부는 후반 초반 독일 쪽으로 기울었고 주인공은 발라크였다. 독일은 후반 4분 미드필드 유판을 돌파하던 필립 린이 아크 윙에 뒤에서 프리

을 얻어냈고 이를 발라크가 오른발로 대포알 슈팅을 날렸다. 발라크의 발등에 제대로 맞은 볼은 빨랫줄처럼 쭉 뻗어나가며 골문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들어갔다.

같은 시간 클라펜푸르트 브레데르제슈타디온에서 열린 같은 조 최종전에서는 크로아티아가 후반 7분 이반 클라스니치의 결승골로 폴란드를 1-0으로 제압했다.

1차전 오스트리아에 1-0 승리, 2차전 독일에 2-1 승리를 따낸 크로아티아는 최종전까지 승리로 이끌어 3연승을 달리며 더 이상 '다크호스'가 아닌 우승 후보임을 증명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유로2012를 공동개최할 예정인 폴란드는 끝까지 8강행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1무2패로 단 1승도 건지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편 B조 2위 독일은 오는 20일 A조 1위 포르투갈과 준준결승에서 맞붙고, B조 선두 크로아티아는 다음날인 21일 A조 2위 터키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

(03 : 30·MBC ESPN)〈프랑스 : 이탈리아〉
(03 : 55·KBS2)
▲ 2008 메이저리그(LA다저스 : 신시내티)(08 : 00·XPORTS)

▲ 07/08 NBA 파이널 6차전(보스턴 : LA레이커스)(10 : 00·MBC ESPN)

▲ 2008 피스컵(뉴질랜드 : 캐나다)(14 : 00·MBC ESPN)
▲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오릭스)(17 : 45·SBS스포츠)
▲ 2008 프로야구(LG : KIA)(18 : 00·KBS N SPORTS)(롯데 : 한화)(18 : 20·MBC ESPN)

"와일드 카드로 뽑아주세요"

'예비 프리미어리거' 김두현

올림픽 축구대표 발탁 희망



'예비 프리미어리거' 김두현
브롬(웨스트브롬)에서 재소집한 터전 무호에 합류한 뒤 인터뷰에서 "와일드카드로 불러준다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두현은 17일 경기도 파주 NFC(축구 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재소집한 터전 무호에 합류한 뒤 인터뷰에서 "와일드카드로 불러준다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화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지난 16일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부상 등을 이유로 와일드카드로 뽑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온 김두현의 발탁 가능성을 더욱 높은 상황.

김두현은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어차피 올림픽이 끝나는 시기인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단에 양해를 구하면 된다"면서 올림픽 대표팀 출전 시기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소속팀 웨스트브롬은 8월 16일 예정된

2008-2009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아스널과 맞붙는다.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 북한과 최종전에 대한 각오도 전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3차 예선 5차전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했던 김두현은 "북한전에서 골 목표는 모든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득점에 대한 욕심을 나타냈다.

박지성, 22일 북한전 출격 불투명

'손흥 탱크' 박지성이 축구대표팀 재소집 훈련에 불참하면서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22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이 남북대결 출격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지성은 17일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대표팀 소집에는 응했지만 이날 오후에 진행된 회복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박지성은 팀 훈련에서 아예 제외된 채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별도

의 재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릎 이상으로 대표팀 전역에서 잠시 제외됐던 박지성은 지난 16일 정밀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몸 상태가 씩 좋지는 않은 상태다.

박지성은 지난해 5월 오른쪽 무릎 부위에 불편함을 느끼 지난 14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원정경기 출전자 명단에선 아예 빠졌다. 하정무 감독은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를 놓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득점에 대한 욕심을 나타냈다.

18일(수)

▲ 유로 2008 축구(네덜란드 : 루마니아)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23-1140, 5210-7011~7022~7032

(광주광역 신봉동, 대인동 소방서 건물)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도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니다.

수완지구 건물임대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72-4585-7011~604-8205
(첨단지구 부업A LC빌딩 사거리)

★ 급매 매★

①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특지실버시설

② 첨단 공업지역내 공장매매

공장건물총 810평, 대지 800평 신축준공 2007년 11월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타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타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중개사

임 대 문 의
011-625-0510, 016-611-3424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열)

☎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최적화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소재지 대/전용 면적/층/감정가/최저가

서동 47/32 750평 32층

송정동 84/42 19평 101평 56평

한양 51/16 19평 101평 56평

화정동 72/138 49평 103평 59평

수동 52/15 19평 101평 56평

동원동 57/253 59평 103평 59평

종합동 61/145 39평 103평 59평

도곡동 69/77 29평 103평 59평

봉산동 92/219 79평 103평 59평

임대동 66/146 39평 103평 59평

백운동 32/24 19평 101평 56평

한성동 71/62 19평 101평 56평

지산동 50/52 19평 101평 56평

도곡동 40/41 19평 101평 56평

임대동 40/41 19평 101평 56평

신사동 44/58 19평 101평 56평

화정동 51/86 19평 101평 56평

봉산동 65/79 19평 101평 56평

한성동 66/82 19평 101평 56평

봉산동 66/82 19평 101평 56평

한성동 66/82 19평 101평 56평

봉산동 66/82 19평 101평 56평

한성동 66/82 19평 101평 56평

봉산동 66/82 19평 101평 56평

한성동 66/82 19평 101평 56평

봉산동 66/82 19평 101평 56